

원 저

암환자 169명의 사상 체질 의학적 분포 연구

이종훈, 방선휘, 유화승, 조정효, 이연월, 조종관, 손창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

Study on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among 169 Cancer Patients

Jong-hoon Lee, Sun-hwi Bang, Hwa-seung Yoo, Jung-hyo Cho,
Yeon-weol Lee, Chong-kwan Cho, Chang-gue Son

Department of East-West Cancer Center, Oriental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differential cancer incidence among *Sasangin* comparing to healthy subjects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 The medical records of 169 patients who had taken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from October 2004 to January 2007 at the East-West Cancer Center in Dunsan Oriental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were reviewed. Diagnosis was done by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

Results : Among the 169 patients, 37.9%, 22.5% and 39.6% belonged to *Soyangin*, *Taeumin* and *Soeumin*, respectively. This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distribution rate of *Sasang* in among healthy subjects (29.1%, 46.9% and 24.0% respectively to *Soyangin*, *Taeumin* and *Soeumin*). This pattern appeared in a similar way among individual cancer analysis: breast cancer (37.5%, 21.9%, 40.6%), colon cancer (41.7%, 20.8% 37.5%), and HCC (35.0%, 20.0%, 45.0%). Stomach cancer typically showed remarkable incidence in *Soeumin* as high as 50.0% and lung cancer showed in *Soyangin* as high 46.7%, but it didn'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mean age of 50.9 years was higher than for healthy people (46.3).

Conclusion : *Sasang* distribution of cancer patients is different from that of healthy subjects. Further study is needed on individual cancers.

Key Words : Cancer, *Sasang* constitution, QSCC II

서 론

의학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에 의해서 후진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암의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률은 점차 증가일로에 있는 반면, 아직 암의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적 발전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1,2)}. 이는 암의 발생과 성장 및 임상 경과에서 매우 복잡한 인자가 연관되어 있으며,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류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³⁾. 그러므로 암의 예방이나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암의 치료에 있어서도 암세포 자체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의 몸을 치료대상으로 인식하여 삶의 질과 생명연장이라는 암치료

· 접수 : 2007년 8월 7일 · 논문심사 : 2007년 8월 10일
· 채택 : 2007년 9월 1일
· 교신저자 : 손창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9진료실
(Tel : 042-470-9481, Fax : 042-470-9005,
E-mail : ckson@dju.ac.kr)

의 근본 목적에 접근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2,4)}.

또한, 암은 지정학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생활 및 식습관적인 요인과 체질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서 각 민족이 다양한 암 발생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통의학지식과 의학적 자원을 이용하여 자국민에 맞는 암의 예방 및 치료 연구의 진행과 지적재산의 구축을 증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암에 대한 오랜 한의학적으로 축적된 지식의 활용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사상의학은 이제마(1837~1900)가 확립한 의학으로, 사람을 장부대소에 따라 네 가지 체질로 분류하고 각 체질에 따른 생리, 병리 및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권장하는 생활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상의학은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의 학 지식 중에서도 한국에서 발전한 의학으로 점차 그 활용성이 인식되고 있다. 아직은 사상체질의 학문적인 의문점이 많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점차 많은 질환들에서 질환의 발병을 결정짓는 외부의 발병인자와 함께 개인이나 그룹의 유전적 소인의 중요성이 알려지고 있다. 사상의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인체가 원래부터 타고난 체질적 성상에 따라 질병과의 관계가 결정지어진다는 것을 한의학적 이론체계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현대과학의 유전자적인 구성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예견된다⁶⁾. 특히 사상의학은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에서 체질에 따른 장부의 배속을 기본으로 하여, 체질별 관련 장기의 질병 발생과 밀접한 상관성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주로 한국인의 사상체질에 분포에 관련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개별 질병에 대한 사상체질 분포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으며, 특히 암환자의 사상체질별 발생장기의 분포에 대한 논문은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로 한방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사상체질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암환자의 체질적 분포 및 특정암에서의 체질적 분포를 조사하고 고찰하여, 향후 한국인 암환자의 예방연구나 의학적 치료대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삼고자하며, 사상의학의 의학적 의미를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004.10부터 2007.1까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외래에 내원한 암환자 중 103명과, 2006.5부터 2007.1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중 외래에서 검사받았던 자를 제외하고 설문지를 작성할 수 없는 중환자를 제외한 115명을 합한 218명 중 체질이 판별된 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체질 감별 방법은 설문지 형식의 사상체질분포 검사지Ⅱ(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Ⅱ: 이하 QSCCⅡ)를 사용하였다.

암 분류 방법은 환자 차트의 기록을 토대로 원 발암만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위암의 간전이” 환자와 “위암”만 판정받은 환자, “위암의 복막 전이”는 모두 동일한 “위암”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암환자의 분포를 구하고, 다른 곳에서 이미 시행한 건강한 사람의 분포 자료와 비교하였다. 대조군으로는 개정된 사상체질분포검사지Ⅱ(이하 QSCCⅡ+) 및 사상체질전문의를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자료인 ‘한국인의 사상인 분포에 관한 연구’의 자료를 선정하였다⁷⁾.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Rel. 8.02 for windows을 사용하여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Pearson's chi-squa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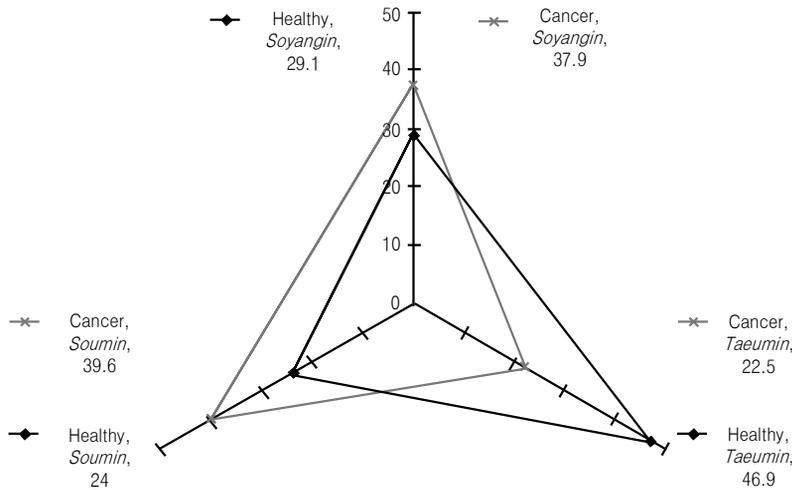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Cancer Patients & Healthy People. Compare to healthy people, *Taeumin* was less than half. *Soumin* and *Soyangin* was higher. (%)
 Cancer Patients : Data is in Dunsan Hosp. of Daejeon Univ.
 Healthy People : Data is in Hosp. of Kyung-hee Univ.

test)으로 수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169명의 사상인 분포 및 성별 구성

사상인 분포는 소양인 37.9%(64명), 태음인 22.5%(38명), 소음인 39.6%(67명)로 산출되었다. 대조군(29.1%, 46.9%, 24.0%)과 비교하여 태음인이 현저히 낮았으며, 소음인과 소양인은 높았다.(Fig 1)

가장 분포가 높은 암은 유방암(18.9%, 32명)이며, 위암(16.6%, 28명), 대장암(14.2%, 24명), 간암(11.8%, 20명), 폐암(8.9%, 15명)까지가 15명 이상의 암에 해당하였다. 기타 암 중 분포가 높은 췌장암 및 갑상선암은 7명이었으며, 다른 암종은 이보다도 낮았다. 이로 인하여 15명 이상 암종까지만 비교하였다.(Table 1)

환자의 연령은 11-82세로 중앙값은 49세, 평균값은 50.9세이며, 성별 분포는 남성 44.4%(94명), 여성 55.6%(75명)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연령의 평균값(46.3세)이 높았으며, 성비(49.5%,

Table 1. Distribution of *Sasangin* in cancer patients.

Type of cancer (N. of patients)	<i>Soyangin</i> (%)	<i>Taeumin</i> (%)	<i>Soumin</i> (%)
Total(169)	37.9	22.5	39.6
Breast(32)	37.5	21.9	40.6
Stomach(28)	28.6	21.4	50.0
Colon(24)	41.7	20.8	37.5
HCC(20)	35.0	20.0	45.0
Lung(15)	46.7	20.0	33.3
Others(50)	40.0	26.0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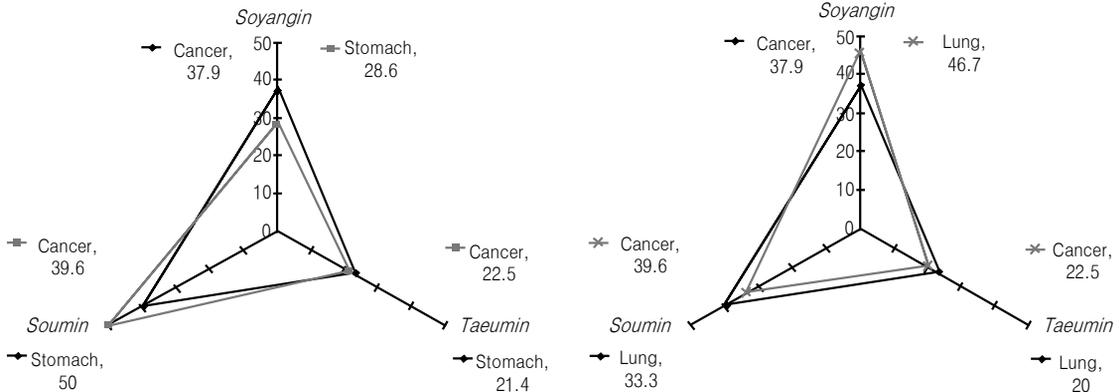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of Stomach and Lung cancer. *Soumin* of Stomach cancer and *Soyangin* of Lung cancer had difference between 169 cancer patient's. But it did not have statistical meaning(p -value>0.05). (%)

50.5%)는 여성이 더 높았다.

2. 암종별 사상체질의 분포도 분석

유방암은 소양인 37.5%(12명), 태음인 21.9%(7명), 소음인 40.6%(13명), 위암은 소양인 28.6%(8명), 태음인 21.4%(6명), 소음인 50.0%(14명), 대장암은 소양인 41.7%(10명), 태음인 20.8%(5명), 소음인 37.5%(9명), 간암은 소양인 35.0%(7명), 태음인 25.0%(4명), 소음인 45.0%(9명), 폐암은 소양인 46.7%(7명), 태음인 20.0%(3명), 소음인 33.3%(5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및 Fig 2)

고찰 및 결론

사상의학은 인간을 크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하고, 선천적인 체질의 특성에 따라 질병치료, 양생법, 일상의 언행과 마음가짐까지 다스리게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삶을 살아가는 전인의학으로 볼 수 있다⁸⁾. 기존의 한의학이 천인관계의 인간관이 중심이 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생리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의학이라면, 사상의학은 심신관계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개체의 특성을 강조한 의학이다⁹⁾. 현재는 체질을 감

별하여 그에 맞는 섭생법을 시행하거나 질병이 있을 경우 체질에 맞는 약을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사상체질은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결정적 근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6,10)}.

암의 원인으로는 자극물, 식품, 화학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등의 외인성 인자와 유전적 원인, 호르몬 대사, 노화, 면역 등 내인성 인자로 발암물질에 기인된다고 알려져 있다⁵⁾.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체질별 과소편급한 성정에 따라 특징적인 병리기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사상의학에서는 기존 전통의 한의학적 접근방법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다른 정신적 자극은 다른 장부에 영향을 주어 서로 다른 병리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으며¹¹⁾ 이는 사상의학을 통하여 암의 발생과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연구의 시발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진은 사상의학적 접근법이 한국인에게 호발하는 암에 대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크게 두 질문이 있었기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첫째는 암환자의 분포가 일반인의 분포와 얼마나 다를 것인가는 점이며, 둘째는

특정암의 체질 분포가 전체 암환자의 분포와 차이가 있을 것인가는 점이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체질 분포와는 달리 태음인이 적고 소음인과 소양인은 많았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태음인의 분포인데, 22.5%로 일반인 4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소음인과 소양인도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분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군(24.0%) 및 원서 문헌(20%)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소음인이 암환자에서는 가장 높은 분포(39.6%)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의 체질 분포와 암환자의 체질 분포에서 사상인의 분포순은 역순이 되었다.

그림이나 테이블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사상 체질에 따른 성향 차이로 특정 체질의 사람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외래에서 측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입원시 검사한 환자만 따로 조사하였는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작성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서 검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체 암환자의 체질 분포와 비교하여 유사하게 나타났다.(95명; 34.7%, 26.3%, 38.9%)

결과는 모두 일반인의 분포와 비교하여 대단한 차이를 나타냈으나($p=0.001, 0.002$), 본 연구의 분포에 대하여 결정적인 기전을 밝히기는 어렵다. 사상의학의 시초가 되는 동의수세보원에서 한국인의 체질분포가 왜 태음인이 가장 많고 소양인, 소음인 순서로 나왔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없으며,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지 못하였다. 게다가, 사상의학의 원저인 동의수세보원이 지어질 당시에는 암에 대한 인식이 현재에 비하여 매우 미비하고 저서에도 나타나지 않아, 이후 암과 관련된 사상의학적 연구의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에서의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세계적으로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 암의

발생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사상체질 분포 또한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북미지역사람들의 체질분포를 파악한 연구에서는, 북미지역사람들은 한국인에 비하여 소양인이 많으며, 특히 백인에게 소양인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¹²⁾.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뚜렷한 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동의수세보원의 사단론에 따르면, 희노애락의 성정으로 인해 기가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 큰 장부와 작은 장부가 생기며, 큰 장부는 그 기운이 성하므로 비교적 튼실하며 작은 장부는 기운이 깎이므로 비교적 약해 병이 생기기 쉬워, 폐대간소(肺大肝小)한 사람을 태양인, 비대신소(脾大腎小)한 사람을 소양인, 간대폐소(肝大肺小)한 사람을 태음인, 신대비소(腎大脾小)한 사람을 소음인이라 정의하였다.

결국, 작은 장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장기의 암에 걸리기 쉽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도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위암에서 소음인의 분포가 높고(50.0%), 폐암에서 소양인의 분포가 높으나(46.7%),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p>0.05$), 소양인과 폐암의 관계는 장부 대소로 설명할 수 없었으며, 다른 암에서는 전체 암환자 분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별의 분포(44.4%, 55.6%)에서는 대조군(49.5%, 50.5%)과 비교하여 남성의 비율이 낮고 여성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암환자 중 여성에서 호발할 수 있는 유방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또한, 평균 연령(50.9세)이 대조군(46.3세)보다 높은 점은 암이라는 질병이 소아암을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병이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다만, 본 연구는 체질감별의 방법에 의한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첫째는 대조군이 체질전문의의 진단과정을 거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과정이 반드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연구도 있으나¹³⁾, 정확성을 위해서 대조

군에서는 실제로 전문의의 진단과정을 거친 만큼 비교 방법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둘째는 사상체질의 감별법으로 설문지 형식의 QSCCⅡ가 체질을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점이다. 그러나 체질약을 복용하거나 소증으로 판별하는 방법이 체질 판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 연구는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가 대상이었으므로 판별을 목적으로만 약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공인되고 간편한 검사일수록 환자가 용이하게 검사받을 수 있었으므로 설문지 검사만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검사의 정확성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번 연구는 암환자의 체질 분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본 연구가 암환자에 대한 다른 연구를 시행할 때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암환자의 체질 분포와 일반인의 체질분포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나온 것은 암과 체질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개별 암에 따른 사상체질의 분포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위암 및 폐암의 체질분포에서 발견된 상당한 차이는 향후 더 큰 연구규모로 연구를 시행한다면 특정 암들 간의 체질분포에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강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암종별 체질편향이 나타날 경우 사상의학은 삶의 질 향상 및 암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안윤옥. 의료보험과 암예방산업. 의료보험. 1990: 61-4
2. 조종관, 유화승. 한의학의 암치료기술. 의성당. 2006:302-3
3. 조종관. 조종관 박사의 플러스 암치료법. 국일미디어. 1999:21-2, 49-50
4. 문혜원. 여성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관한 연구. 여성의학. 2004;5(2):19-44
5. 최수용. 한국인의 암발생위험요인. 한국역학회지. 1988;10(1):30-9
6. 조황성. 사상체질과 유전학.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13-24
7. 이태규, 황민우, 함통일, 이수경, 최봉근, 고병희, 송일병. 한국인의 사상인 분포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3):12-21
8. 박성식, 박은경, 최재영.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 일치도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11(1):103-17
9. 박성식, 송일병. 사상의학의 의학적 연원과 이 제마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1-34
10. 김대운. 사상체질의 유전성 검토에 대한 통계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159-68
11. 안상우. 스트레스의 한의요법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88-9
12. 고병희, 김선호, 박병관. 북미지역주민의 사상체질 분포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19-50
13. 김상복, 이준희, 박계수, 정용재, 이수경, 송일병.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Ⅱ에 대한 임상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15- 22